

'민식이법' 시행 6년에도 스쿨존 사고 여전

작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35건 '최다' 전년 대비 4배 ↑... 보행 중 사고·하교 시간 집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주지역 스쿨존 내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35건으로 도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231건)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11건), 2021년(8건), 2022년(14건), 2023년(8건), 2024년(8건) 등과 비교해 6년새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가 역시 38명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부상자는 2020년엔 11명, 2021년엔 8명, 2022년엔 14명, 2023년엔 9명, 2024년엔 8명

이었다. 사망자는 없었다. 사고는 보행 중 사고(23건·66%)가 발생하거나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27건·77%)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부상자 연령별로는 8~10세(24명·63%) 등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단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가 다칠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해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무단단속 장비 설치 증가와 법 처벌 규정 인식 격차 등이 꼽히고 있으나 스쿨존 내 사고 중 일부가 일방도로 사고로 분류돼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지난해 시스템화로 바로 잡힌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제

주지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도 도로관리과, 행정시건설과, 제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나서고 있다.

실태조사는 우선 10개소를 선정해 문제점을 분석·개선하고 조사체계와 방향을 정립해 총 1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분석, 안전시설 현황, 차량 통행량, 보행신호주기 등 1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제주 현실에 맞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한 전과 최고 수준의 보호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수학여행 은 고등학생 성추행·폭행 50대 입건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여자 고등학생 5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

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남자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24시간 돌봄'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 운영

제주대병원 율해말 시행

제주지역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포괄

적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중 의료적으로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이며 시범기관 방침에 따라 24세까지 확대할 수 있다. 환자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의료·간호를 제공하게 된다.

백소정기자

신규 고정식 CCTV 활용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오라지구대·하버호텔 등 3곳

제주시는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4대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무단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와 하버호텔 인근 각 1대와 해모루투민 인근 2대 등이다.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속 구간 내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 예정지에 대해



구멍뚫기 11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안에서 한 어르신들이 돌 틈 사이로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구멍뚫기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는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지역 내 운영 중인 고정식 CCTV 설치대수는 369대(일반 282, 스쿨존 87)다.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

원, 버스터미널, 신제주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5분 이내만 정차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인력 투입 1만3211건, 주민신고제 3만3434건, 무인단

속 6만1158건 등 불법 주·정차 10만7803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스쿨존에서 단속된 사례도 1788건으로 적지 않다. 올해도 5월말 기준, 스쿨존 577건을 포함해 단속건수는 1만3429건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19 영상 응급처치, 심정지 환자 살린다

제주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21.1%

제주 119급상향관리센터의 영상 응급처치 지도로 이달에만 4명의 심정지 환자가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3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동을 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급상향관리센터는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A씨가 심정지 상태임을 파악, 신고자에게 가슴 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시를 안내했다. 이 덕분에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자발순환을 회복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4시24분쯤 제주시 연동에서도 40대 남성 B씨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

또한 구급상향관리센터의 영상 응급처치 지도와 주변 동료의 심폐소생술로 인해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119구급상향관리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응급환자 상담·안내, 응급처치 지도, 의료 지도, 이송병원 선정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영상 응급처치 지도는 신고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안내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8.8%, 2024년 20.4%, 2025년 20.4%, 올해 6월 10일 기준 21.1%를 기록했다.

양유리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중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